

서울시 최초의 여성홍보과장 된 정미홍 씨

“첫 길 제대로 닦아야죠”

‘시장만들기’ 성공, 산뜻한 시청만들기로 이을 터

“아직 정신이 없습니다. 이곳 분위기가 파악하고 제자리를 잡기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 있을 따름입니다.”

지난 6.27 선거 때 조순 시장 선거대책본부의 부대변인으로 주목을 받았던 정미홍 씨(36)가 서울시 핵심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돼 다시 한번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다. 조순 시장이 서울시정을 맡은 지 한달 뒤인 지난 8월 1일 정 씨는 서울시 홍보담당관실 홍보과장(4급, 서기관)으로 발령을 받았다. 서울시에서 여성이 홍보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. 홍보담당관실은 서울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홍보 기획을 담당하는 중요 부서로 조순시장 취임 이후 신설됐다.

“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 일을 하다보니 자신감이 듭니다. 재미도 있습니다.”

KBS아나운서로 출발해 프리랜서, 선거대책본부 부대변인을 거쳐 공무원으로 자리바꿈을 해 오면서 정 씨가 가장 중요하게 염두해 두고 있는 생각은 한가지다. 첫 길을 제대로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.

“방송국 생활 때도 그랬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거대책본부의 부대변인으로 일할 때는 사명감이 컸습니다. 내가 잘해야 다른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의 핵심참모로 일할 수 있다는 일종의 책임감이죠.”

사실 조순 선거운동본부에서 부대변인직에 여성을 임명한 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결정이었다. 후보의 젊은 이미지 만들기의 일환이었던 것이

다. 당시 정 씨는 선거 운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후보와 함께 행동했다. 특히 신문이나 방송에 후보자가 등장할 때면 어김없이 후보의 흰한 뒷 배경이 됐다.

그러나 정 씨의 진면목은 다른 곳에서 드러났다. 십수개의 신문기사와 방송뉴스를 점검해 후보자에 불리한 점을 찾아 교정하는 일, 매일 아침 각 사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브리핑 하는 일, 기자들의 성향과 보도태도를 분석해 최선, 최대의 보도 효과를 유도하는 일 등이 정 씨의 몫이었고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. 홍보과장이라는 중책이 선거운동본부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임은 두말 할 것도 없다.

“일을 시작한지 이제 몇주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다만 신선한 서울시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”

정 씨는 발령 이후 쏟아지고 있는 인터뷰 요청을 ‘몇달 뒤’를 기약하며 될수있는 대로 거절하고 있다. 최근 의도하지 않은 내용의 기사가 나와 곤혹을 치르고 있어 인터뷰에

더욱 조심스럽다. 이달 말에 수필집을 출간할 예정으로 있는데 여성잡지에서 그 책 중 화제를 모을 만한 내용만 요약, ‘수기’라는 이름으로 게재하는 바람에 안밖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.

“그 책은 여성들을 위해 썼어요. 여성지에 나와 있는 것은 방송국에서의 작

은 사건들을 정리한 것인데 그것은 적은 부분이에요. 제 투병생활과 선거 현장 체험담 등이 대부분이고요. 특히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거예요.”

정 씨는 현재 루머티스의 일종인 전신성홍반성 루프스라는 병을 앓고 있다. 이름



“첫 길을 잘 닦겠다”는 사명감으로 공직사회에 임하겠다는 정미홍 씨.

도 생소한 이 병을 우리나라에서만 수만명의 여성이 앓고 있다. 정 씨는 병을 극복하기 위해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식이요법에도 전문가가 된 자신의 체험담이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썼다고 한다.

〈황금희 기자〉